롯데정보통신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프로그래밍

**지원동기**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저의 성격과 롯데정보통신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전은 일맥상통 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정보통신은 롯데의 '2018 아시아 톱 10 글로벌 기업' 비전 아래 해외 IT사업 확장을 위해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계열사를 바탕으로 축적된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롯데정보통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혁신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는 저에게 롯데정보통신은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꿈은 롯데그룹이 고객 지향적인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고객을 위한 글로벌 IT 컨버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신 IT 추세를 기반으로 고객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서비스 제공은 추후 롯데정보통신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비전을 롯데정보통신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습니다.

**성장과정**

스스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추진하는 성격은 경찰공무원이신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경우에도 못하는것과 안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무슨 일을 시작해도 일을 완수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때 컴퓨터가 좋다는 이유로 컴퓨터학원에 등록하였을 때는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5년정도를 다니면서 고등학생 때까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새로운 면을 경험하였고 꾸준히 학원을 다니면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포함하여 6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혁신과 변화를 추구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멀티미디어 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학과에서 마야, 베가스, 비쥬얼 스튜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을 배웠지만, 컴퓨터공학과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컴퓨터 동아리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향후 진로를 IT로 정해야겠다는 확신과 함께 편입을 하였습니다. 1년간의 노력끝에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였고, 투자한 만큼 그곳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표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은 입사 후 고객에게 최적의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엔지니어가 되는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사회활동**

저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마트에서 코레일 제품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2달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교육을 이수하고 고객과 첫 대면을 하였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하고 열심히 설명을 하였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휴식시간동안 저의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점검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저는 친철한 판매원일뿐, 고객이 숨겨진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특징 및 장단점을 이해하고 고객이 제품의 실용성, 가격, 디자인 등 어떠한 점을 원하는 지 파악하고 고객 맞춤형 설명을 하였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고객과의 응대시간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 판매실적도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하루에 최대 150만원까지 판매수익을 올려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가장 기억나는 것은 저희 매장 내 가장 비싼 텐트를 팔았던 기억입니다. 이 텐트는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한번도 팔아본적이 없는 40만원대의 고가의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도 40만원대의 가격이 부담으로 느껴져 구매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객을 응대하면서 고객이 대가족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고가의 텐트의 넓은 면적과 어른들과 아이들을 위한 2단 방수기능을 설명하여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어떤 일이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존재할 것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한다면 안될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무경험**

롯데정보통신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실무능력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한국전기연구원 첨단의료기기센터에서 6개월간의 인턴과 2014년도 하계 네이버 인턴십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의료기기 업체인 (주)휴비딕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원격 맥진 시스템인 개인용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Labview로 제어되는 3축 맥진기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리모콘 기능을 구현하고 맥박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국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입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학술지에 등록 되었다는 점에 매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네이버 인턴기간 동안 모바일 성능 분석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의 화면 끊김 현상에 따른 튜닝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 가비지 컬렉션과 프레임 렌더링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네이버 인턴기간은 다른 무엇보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GIT, MAVEN, YOBI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무감각을 배웠다는데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인천대학교 어플만들기 경진대회, 한국전기연구원에서의 사상체질 자가진단 앱 개발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턴십과 경진대회에 열중하다보니 영어공부에 소홀하여 영어점수가 다소 오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일을 적절히 분배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나친 도전정신이 가끔 독이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 포부**

첫째, 입사 후 1년간은 롯데정보통신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하여 선임 연구원들을 보좌하겠습니다.

둘째, 3년 후 저는 롯데그룹의 '2018 아시아 톱 10 글로벌 기업' 비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국가별 맞춤형 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진보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5년 후 롯데정보통신의 추구하는 사업 방향에 맞춰 선도하는 선임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일환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IT 컨버젼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10년 후에는 폭넓은 IT지식과 경험이 많은 책임 연구원으로써, 미래를 짊어질 유능한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책임과 열정을 내면화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